

전남도-한국조폐공사, 지역화폐 광역플랫폼 구축 협약

지역상품권 이용편의·빅데이터 활용 생활서비스 확대 전망 “순쉽게 상품권 구매·사용 소비자 접근성 높이는 것 중요”

전남도는 19일 도청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지역상품권 이용 편의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행복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했다.

이는 전남도가 한국조폐공사 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구축사업에 우선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광역플랫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강화 ▲전남행복지역화폐 발전을 위한 공사-도-시군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전남행복지역화폐와 연계한 전남도 쇼핑물 등 부가서비스 연계연동 및 정책수당 고도화를 통한 도민과 관광객 편의성 극대화 등에 협력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2023년 상반기 중 전남행복지역화폐 전용 앱을 개발하면 전남 22개 지

역시상품권을 하나의 앱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전남행복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화폐의 발행과 부정유통 의심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체 생산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배달·쇼핑·정책수당 지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쉽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장식 사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광역 플랫폼을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생·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지속가능하고 자생력 갖춘 골목경제 만들기가 필요한 때”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시청에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두 번째 월요대화를 열었다.

이번 월요대화에는 청년상인, 상권육성 전문가, 1913송정역시장 기획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브랜드 구축 및 로컬 관광화 ▲골목상권의 범위 ▲골목경제 분석 및 정확한 시장 공략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1913송정역시장 기획자인 김영관 현대카드창업지원센터장은 “사업을 기획할 당시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빈 점포를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시장 상인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를 만들고, 계속 찾아오는 단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브랜드화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개념을 접목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1913송정역시장 청년상인들은 “타지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광주 가면 그거 꼭 사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광주만의 브랜드를 만들

고 마케팅해서 골목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송정역시장을 포함한 인근 5개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타랑계와 같은 공유자전거 활용, 그리기·글짓기 대회 등 문화콘텐츠 연계 방안 등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누구나 ‘광주’하면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나 명물을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을 갖춘 골목경제 만들기가 필요한 때”라며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과감한 관점에서 골목상권을 재설계하고 기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광주시가 주도하는 골목사업 발굴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노지현 느린먹거리 부각마를 대표, 박강근 계란반 대표, 전재용 송정역세권상권 르네상스사업단장, 고태훈 중앙상권 르네상스사업단장, 김영관 현대카드창업지원센터장, 정주리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대리, 서신혜 동구청 도시재생과 주무관, 송권준 시 경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환기자

전남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본격 추진

별도 T/F팀 조직...정주여건 개선 통해 지역소멸 위기 적극 대응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지역의 주거안정 등을 통한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20일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중모)에 따르면 최근 공사내 ‘공공주택사업T/F팀’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임대, 분양 형태의 주택공급 등을 통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지난 2004년 설립된 공사는 그동안 대안

위 토목위주의 사업에 주력해 왔는데,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달 장중모 사장 취임이후 공사는 전남의 청년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준비해 왔다.

공사는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라남도 및 시군과 5-6개의 후보지를 발굴하고 개소별 30-50호 규모의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또한, 노후된 마을주택 정비를 통해 지역주거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의 적극적 유입을 위한 소규모 주택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현재 개발 중인 사업지구(광양, 담양 등) 내 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해서도 이 같은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익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장중모 사장은 “청년주택, 마을정비사업 등 전라남도 시군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인구소멸 위기 등 전남의 현안 해결에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중대재해 예방 위한 도급사업장 특별안전점검

“불안전요인 적극 조치...앞으로도 재해예방활동에 만전”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장 특별안전점검(12을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계절적 취약요인에 대한 불안전요인 발굴·해소, 취약시간대 작업현장 점검을 포함하여 각종 기계·기구 정상 기능확보 여부 및 법정교육 이행상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열차운행상 안전관리 준수여부 및 비상시 조치에 대한 훈련 상황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겨울철 도급사업장의 운영상 예외사항과 직원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소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따라서 각종 교육자료의 제공 등 도급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지용태 본부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불안전요인에 대하여 적극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해산 및 채권신고(2차)

본 법인은 2022년 10월17일 임시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구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 12. 21.

태영수산업어조합법인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평호리 126-26
청산인 윤태하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료부담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급여비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적연금 1597-1000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많은 근무시간에 야근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살피고 기업을 근무자 모두 행복해진다.

국민 이해관계에서 국민은 승리한다.